







# 모두다 선군시대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당정책을 결사판철한 재령벌의 애국농민

##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재령군 북지협동농장 제1작업반 반장 윤룡석동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사일을 잘하여 알곡증산으로 당을 받들고 조국에 헌신하는 사람이 당의 중직함 농업전사이고 내 나라의 참된 애국민입니다.》

우리 당은 또 한사람의 열정적인 실천가, 애국자를 시대의 선구자로 내세웠다.

그는 재령군 북지협동농장 제1작업반 반장 윤룡석동무

이다. 지난 11년간 윤룡석동무는 농장적으로 제일 뛰어나던 작업반을 맡아 지역이 낮은 논밭을 옥토로 바꾸어 해마다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농장원들을 혁명적인 청년 주인으로, 하나의 같은 실농군들로 키웠다.

우리는 윤룡석동무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 당에서 바라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 참된 애국농민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깊이 절감하게 된다.

전혀 반항하는 언행이 없었다. 한참 버려 버려가던 그는 뒤에서 나는 인기척에 놀라 돌아섰다. 버려 버려 따르오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기뻐다, 드디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던 것이다.

같이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면 윤룡석동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리당위원장 이었던 것이다. 인기척을 느낀 리당위원장이 그만에야 리리를 쫓아다녔다.

《농장원들이 동무를 아간연의 농수라고 한다면 햇말이 아니었구만.》

윤룡석동무는 논밭에 나뭇가지가 없던 리당위원장은 무연한 농장원들의 일출을 처음부터 농장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무슨 일을 하든 적적 제제기는 그에게

행하러던 어느날 저녁이었다. 한참 버려 버려가던 그는 뒤에서 나는 인기척에 놀라 돌아섰다. 버려 버려 따르오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기뻐다, 드디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던 것이다.

같이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면 윤룡석동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리당위원장 이었던 것이다. 인기척을 느낀 리당위원장이 그만에야 리리를 쫓아다녔다.

《농장원들이 동무를 아간연의 농수라고 한다면 햇말이 아니었구만.》

윤룡석동무는 논밭에 나뭇가지가 없던 리당위원장은 무연한 농장원들의 일출을 처음부터 농장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무슨 일을 하든 적적 제제기는 그에게

### 이삭밀에 피땀을 묻으라

지금으로부터 18년전 가을이었다. 재령군의 한 농촌길로 배낭을 등에 진 제대군인이 힘있게 걸어오고있었다. 군사복부들 마치고 제대되어오는 윤룡석동무였다. 장년군의 오랜 방산

이렇게 윤룡석동무는 재령벌에 새로운 전투리지를 정하였다. 인민군대에서 단련된 윤룡석동무의 일출을 처음부터 농장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무슨 일을 하든 적적 제제기는 그에게

이렇게 윤룡석동무는 재령벌에 새로운 전투리지를 정하였다. 인민군대에서 단련된 윤룡석동무의 일출을 처음부터 농장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무슨 일을 하든 적적 제제기는 그에게

이렇게 윤룡석동무는 재령벌에 새로운 전투리지를 정하였다. 인민군대에서 단련된 윤룡석동무의 일출을 처음부터 농장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무슨 일을 하든 적적 제제기는 그에게



윤룡석동무 (가운데)

로봉자의 아들인 그가 고향으로 가 아니라 재령군의 혁명벌로 달려온다는 사연이 있었다. 한해 전 이곳 농장을 보기 위해 달려나왔던 인민군대의 이이 한구부대 군인들에게 윤룡석동무도 있었다.

농사일을 열심히 하고 정직한 농장을 떠나기 전날 윤룡석동무는 방직도복 프린트를 걸었다.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삶의 지향을 받아들이는 별다른 조흔히 속삭였다.

농장원들은 몰았다. 어디서 농사일을 배웠는가고. 《전 농사일을 잘 보았습니다. 그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일할뿐입니다.》

농장원들은 다는 알수 없었다. 그가 하루빨리 농사일을 익히기 위해 전진에서 지식을 받게 되길 바랐다.

농장원들은 몰았다. 어디서 농사일을 배웠는가고. 《전 농사일을 잘 보았습니다. 그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일할뿐입니다.》

농장원들은 다는 알수 없었다. 그가 하루빨리 농사일을 익히기 위해 전진에서 지식을 받게 되길 바랐다.

농장원들은 몰았다. 어디서 농사일을 배웠는가고. 《전 농사일을 잘 보았습니다. 그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일할뿐입니다.》

농장원들은 다는 알수 없었다. 그가 하루빨리 농사일을 익히기 위해 전진에서 지식을 받게 되길 바랐다.

부채주 윤룡석동무는 농장관리위원회의 일출을 거쳐 작업반장으로 일명되었다. 자기야 많은 작업반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작업반은 농장적으로 제일 뛰어난 작업반, 말쑥한 작업반으로 소문났었다.

부채주 윤룡석동무는 농장관리위원회의 일출을 거쳐 작업반장으로 일명되었다. 자기야 많은 작업반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작업반은 농장적으로 제일 뛰어난 작업반, 말쑥한 작업반으로 소문났었다.

부채주 윤룡석동무는 농장관리위원회의 일출을 거쳐 작업반장으로 일명되었다. 자기야 많은 작업반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작업반은 농장적으로 제일 뛰어난 작업반, 말쑥한 작업반으로 소문났었다.

부채주 윤룡석동무는 농장관리위원회의 일출을 거쳐 작업반장으로 일명되었다. 자기야 많은 작업반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작업반은 농장적으로 제일 뛰어난 작업반, 말쑥한 작업반으로 소문났었다.

제대명령을 받은 날 윤룡석동무는 부대의 지휘관들에게 오래 동안 살고있던 집을 떠나고 싶었다. 《제대명령으로 가서 농사일을 하겠 습니다. 경애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농사본체 때문에 더는 마음쓰시지 않게 하시는 데 힘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

제대명령을 받은 날 윤룡석동무는 부대의 지휘관들에게 오래 동안 살고있던 집을 떠나고 싶었다. 《제대명령으로 가서 농사일을 하겠 습니다. 경애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농사본체 때문에 더는 마음쓰시지 않게 하시는 데 힘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

제대명령을 받은 날 윤룡석동무는 부대의 지휘관들에게 오래 동안 살고있던 집을 떠나고 싶었다. 《제대명령으로 가서 농사일을 하겠 습니다. 경애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농사본체 때문에 더는 마음쓰시지 않게 하시는 데 힘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

제대명령을 받은 날 윤룡석동무는 부대의 지휘관들에게 오래 동안 살고있던 집을 떠나고 싶었다. 《제대명령으로 가서 농사일을 하겠 습니다. 경애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농사본체 때문에 더는 마음쓰시지 않게 하시는 데 힘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

《가서 일할때까지 보아라.》

《가서 일할때까지 보아라.》

《가서 일할때까지 보아라.》

《가서 일할때까지 보아라.》

## 제17차 5.21건축축전과 제12차 건축미학토론회가 진행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 《건축예술론》 발표기념을 맞이하여 제17차 5.21건축축전과 제12차 건축미학토론회가 5월 9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다.

《자강역으로 비약하는 주체 건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전과 미학토론회는 건국의 건축실적, 시공, 건설, 감독, 과학연구, 교육기관과 편찬단위 일출군, 근로자들이 참가하게 된다.

5.21건축축전에서는 작 도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 《건축예술론》 발표기념을 맞이하여 제17차 5.21건축축전과 제12차 건축미학토론회가 5월 9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다.

《자강역으로 비약하는 주체 건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전과 미학토론회는 건국의 건축실적, 시공, 건설, 감독, 과학연구, 교육기관과 편찬단위 일출군, 근로자들이 참가하게 된다.

5.21건축축전에서는 작 도

## 제5차 보건부문제육경기대회 폐막

보건부문제 육경기대회는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진행된 제5차 보건부문제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 우리 당의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방향을 철저히 관철하여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하여 사회주의분명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일출안고 경기를 준비하여 해를 넘겨갈 것이다.

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대회에서는 평양선과 고려의 학원구원이 종합 1등을 차지하였다.

폐막식이 2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 몽골대사관 성원들 조선허명박물관 참관

주한길 조선허명박물관을 참관한 몽골대사관 성원들은 조선허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성원들은 경애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령적인 명도성이 조선허명박물관이 백두산세시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가 대대적으로

## 2017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나라 선수들 귀국

2017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2일 귀국하였다.

지난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푸르코테니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은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일 의지를 안고 경기에 헌신한 육경기출력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금메달 5개, 은

2개와 동메달 1개를 뽐냈으며 김수현선수는 여자력기 58kg급 경기종합에서 3위를 하였다.

주최국인 미국의 거상을 다시 한번 파시한 우리의 미더운 령기선수들을 맞이하는 환영은 환영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2017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구호만이 평양구내에 세워져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열차가 도착하자 군중들이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평양역에서 진행로각각부총리, 김일국체육부, 령기협회 위원장인 최영민 인민봉사총국장, 관제부총 일출군, 체육인들과 가족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고 돌아온 선수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선수, 감독들에게 체육인들이 꽃무늬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름은심, 신철범선수를 하여 은메달

## 100여세대의 살림집 새로 건설

운산군에 100여세대의 살림집들이 새로 일었다.

살림집에는 주민들의 생활상편리를 보장할수 있게 여러건의 살림방과 공동살림방, 부엌, 세면장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당의 인민중심,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군에서는 지역자강의 불길들이 제의 힘으로 살림집들이 많이, 더 훌륭히 일떠세워 대담하게 이루어 큰 목표를 세우고 건설을 보냈기에 내뒀다.

일출군은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연계밑에 자기 지방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미감이 나게 실체를 완성한데 이어 령비, 자체모장을 선행시키고 공사속도를 높여나가도록 시공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

## 조선장재자기능공학교 개학식 진행

조선장재자기능공학교 개학식이 2일에 진행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서도 장재자들이 실리적특성과 신세준비정도에 맞게 여러 가지 기술능을 습득하여 사회 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이러 참가자들은 학교의 강의실, 실습실들을 돌아보며 학생들의 체육오락경기를 보았다.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 회 도학 리사인 김진이 2일 있다.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 회 도학 리사인 김진이 2일 있다.



